

가금농가 축산차량 출입 통제방안 알림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◎ 농림축산부식품부는 최근 철새 도래 증가,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 지속 검출 등 AI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,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주요 원인인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‘축산차량 출입통제방안’을 마련하였다.
- ◎ 이에 AI 발생 예방을 위해 동 방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.



가금농장 내 축산차량(사료, 분뇨, 계란, 왕겨) 출입통제 방안

◆ AI 위험시기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은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 세척·소독 강화 후 진입

1. 축산차량별 조치사항

◎ 사료차량

- (포대사료) 외부에서 하차(또는 인수) 후 농장 내부로 이동
- (벌크사료) 농장 밖에서 바로 내부 저장시설로 투입하거나 농장 자체 차량 또는 해당 농장 전용차량으로 운반
- ※ 불가피한 경우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(업소/거점/농장)을 실시

◎ 분뇨차량

- (육계·육용오리·토종닭) 가축이 없는 상태에서 분뇨 반출
- (산란계) 농장 자체 장비(출입시 소독철지)로 분뇨를 외부 이동 후 반출
 - 특방기간 이후 분뇨 반출(분뇨처리장 또는 콤포스트 등을 구비한 농장)
 - * 농장 내 퇴비생산 후 완제품을 자가 차량으로 반출(타농장방문금지)시 허용
- ※ 불가피한 경우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(업소/거점/농장)을 실시

◎ 계란차량

- 농장 자체 장비(출입시 소독철저)로 외부로 이동 후 계란 수집차량 상차
- 농장 자체 차량이나 전용차량으로 외부 반출(농장 방문금지)시 허용
- ※ 불가피한 경우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(업소/거점/농장)을 실시

◎ 왕겨차량

- (육계·육용오리·토종닭)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왕겨 반입
- (산란계·종계·종오리) 입구에 하차 후, 농장 장비로 내부 반입
- ※ 불가피한 경우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(업소/거점/농장)을 실시

2 기관별 조치사항

◎ 농식품부

- 가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방안 시달, 추진상황 점검 등 총괄
- 지자체, 관련 단체(협회)에 통제방안 이행 협조요청
- 출입통제 방안 홍보(보도자료 배포, 브리핑 등)
- 불시 현장점검(농가·시설, 지자체)을 통해 이행상황 확인
- ※ 통제방안 불이행 농가 정보를 파악·공유, 점검·검사 등 패널티 이행상황 점검

◎ 농림축산검역본부

- 가금농가 현장점검 시 통제방안 이행 여부 확인·보고(주 1회)
- 축산차량 GPS 정보를 이용해 이행 상황* 확인·보고(주 1회)
- * 차량별 가금농가 출입 횟수, 거점소독시설 방문 없이 농가에서 농가로 이동한 사례 등
- 출입통제 방안 홍보(SMS 문자, 현장 지도)
- ※ 불이행 농가 정보는 별도 관리·보고하고, 현장점검 강화(불이행 확인 후 1주일 이내)

◎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- 시료 채취 등 농가 방문 시 통제방안 이행 상황 파악·보고(주 1회)
- 출입통제 방안 홍보(현장 지도)
- ※ 불이행 농가 정보는 별도 관리·보고하고, 전화예찰 강화(매주 1회 이상)

◎ 지자체

○ 관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*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알림(공문 및 문자 등)

* 사료공장, 비료·분뇨업체, 계란 GP센터(선별포장업 포함), 왕겨업체 등

○ 상시예찰 등 농가 방문 시 통제방안 이행 상황 파악·보고(주 1회)

○ (3단계 소독) ① 축산시설에서 출발 시 소독 후 소독필증* 발급(업체), ② 거점소독시설 발급 ③ 농장 출입 시 소독, 소독필증 2장(업체, 거점) 확인

* 축산시설에서는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 서식에 따라 발급 1부 보관

-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 발급 시 목적지 농장을 정확히 기재하고 1회 1농장 방문 및 미준수 시 패널티 설명

※ 불이행 농가 정보는 별도 관리·보고하고, 검사·점검 강화(불이행 확인 후 1주일 이내)

◎ 생산자단체(양계·육계·오리·토종닭협회, 사료협회, 계란유통협회, 유기질비료협동조합 등)

○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대상 출입통제 방안 홍보, 이행 독려

